



## 장석현 예비후보, '무소속·3당 행' 또 국힘 선거 전멸?

인천 남동구 갑을 지역구 22대 총선은 버리는 카드 공천으로 해석되고 있는 가운데 장석현 전 남동구청장이 태풍의 눈으로 떠올라 12년의 민주당 장악을 다시 16년 연장선을 가지고 올 것이라 예측이 부상되고 있다.

인천 남동구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맹성규·윤관석 의원이 국회의원직 바통을 받거나 계속 당선된 지역구다. 이런 지역구에 그나마 남동구청장을 지낸 후보가 유일함에도 해비급 후보에게 경선의 기회도 주지 않고 컷오프를 시켰다. 이유는 전과다.

실제 전과가 생긴 이유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을 위해 소래어시장 화재 당시 상인들을 보호하려다 생겼다. 화재로 인해 상인들은 먹고 살길이 아득하다고 장 구청장에게 애원하여 광장에다 임시어시장을 개설하여 준 사실이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국힘 홍준표 대통령 후보 지지 문자를 보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쯤되면 주민들을 위한 단체장 애심과 당에 대한 충성도는 검증이 됐다는 사실이다. 5년간 피선거권 고통을 견디

22대 총선은 끝까지 간다...국민의힘 승복 빌미 명분 안줘 물러설 수 없는 퇴로 막아...남동을 출마도 점쳐져 불똥 염려



장석현

맹성규

배진교

이병래

신재경

고주룡

다가 풀려 22대 총선에 다시 한번 남동구를 살리고자 나섰다.

현재 남동구는 적자 도시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러나 민선6기 장석현 구청장은 가용예산까지 1000억 이상 흑자 도시를 만들고 나왔다. 이런 전직 구청장을 국민의힘은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충성스러운 당원임에도 경선의 기회도 주지 않고 배제했다.

남동구민을 무시했다는 평가다. 장석현 예비후보에게 물러설 명분도 주지 않고 컷오프를 시켜 퇴로를 막았다는 것, 국힘 전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끝까지 레이스를 하라며 국힘에 대한 원망이 크다. 중앙당사로 몰려간 지지자들은 항의했지만 외면당했다.

장석현 전 남동구청장에게도 확인했는데, 22대 총선 레이스는 끝까지 간다는 답변을 들었다. 남동갑 경선 후보자들은 손범규·전성식·정승환 3명 예비후보로 경선이 확정됐다. 맹성규 의원은 21일 20시를 기점으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다.

남동을은 국힘 신재경·고주룡이 후보가 되기 위해 경선을 위해 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관석 의원 지지를 받고 있는 이병래 예비후보와 정의당 배진교(비례) 현역 국회의원이 총선에 도전한다. 지역 정치판은 2파전과 4파전이 예상된다.

한편, 장석현 전 남동구청장이 남동갑으로 출마할 경우 제2의 이

윤성 전 의원이 될 것이라 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결이 현저하게 다르다. 이윤성 전 의원은 경선에서 패하고 탈당해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 전 남동구청장은 경선 자체도 하지 못한 컷오프로 퇴로가 막혀 주민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명분은 국민의힘을 외면하기 보다 무소속으로 나와 당선된 윤상현 의원과 결이 같다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이다. 국힘 공천은 망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소리다.

장석현 예비후보가 남동갑으로 출마할 경우 이번 맹성규 의원 욕설 논란 보도에도 불구하고 국힘 의힘 표심과 주민들의 동정표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어 국힘은 어

려운 선거를 치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태풍의 눈 소리가 합리적인 소리로 들린다.

남동을 노선으로 틀을 경우는 정치적 셈법은 훨씬 복잡하다. 4파전 분석되는 지역 정치 현황은 국힘의 이탈표가 있다는 사실이다. 정의당과 민주당의 단일 후보가 나올 경우 필패는 불 보듯 뻔한 문제로 부각된다. 장석현 후보 인물은 주장이 핵이 될 전망이다.

남동갑 2선 맹성규 국회의원 욕설 논란에도 약체인 후보들 성향상 장석현 후보가 나오지 않아도 어려운 선거다. 12년간 민주당의 장악은 녹록히 볼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간 지역구를 지킨 인물과 비교하면 활동이 미미한 후보들의 판세는 격이 다르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장석현 예비후보의 정치적 무거움은 국힘으로서는 이래저래 어려운 선거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장 예비후보 배제를 두고 악수를 두었다는 것이 정치를 잘 아는 인사들의 평가고 영터리 공천 심사를 했다는 지역 반발은 만만치가 않다.

/김양훈 위원 /문미순 기자

## 더 민주당 인천 연수를 정일영 남동갑 맹성규 확정

민주당 경선 선거구 결과 발표...맹성규, 고준수와 박빙

21일 밤 10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21개 경선 선거구를 발표했다.

인천에서는 연수를 정일영, 남동갑 맹성규 등 현역의원이 통과했다. 따라서 두 의원은 4월 10일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다.

이번 경선은 일반시민 50%, 권리당원 50% 비율로 ARS 투표로 진행했다. 경선 결과는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해 최종 확정했다.

맹성규 의원은 욕설 논란에 휘말리면서 고준수 전 시의원에게 약 350표 차이로 어렵게 승리해 공천을 받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정필모 의원이 21일 돌연 선관위원장직을 내려놨는데 민주당 관계자는 정 의원은 중앙당에 사표를 제출했다는 것으로 확인이



정일영

맹성규

됐다.

이와 관련, 사표 이유는 정체 불명 여론조사의 불공정 공천 논란에 따른 당내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 위원장이 결단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것 아니냐로 풀이되고 있다.

당 관계자는 "건강 문제 때문인 것 같고, 후임이 인선될 때까지는 강민정 부위원장이 대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최근 여론조사 논란과 관련해서 당에서 압박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전했다.

## 인천문화재단 신임 대표이사에게 바라는 '시민 생각'

### 사설

지난 21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문화재단 제8대 대표이사로 김영덕(59) 전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을 역임한 전북 고창 출신을 선임했다. 인천인이 아니란 소리다. 그러나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자타가 공인할 만큼 인정을 받는 인물이라고 한다.

신임 대표의 행적을 돌아보면 진보 측 인사들과 교류가 깊었던 평판이 있다. 선임 과정 세탁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특출한 예술인들이 많이 배출된 고창이 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정치적 행위를 뺀다면 긍지가 깊다.

인천문화재단 대표자리는 그런 정치적 색깔을 배제하는 자리로 인천만의 문화예술을 위해 노력하는 자리다. 인천은 충청권, 전라권이 주류가 된 지역으로 늘 정치적 참여함은 '우리가 남이' 아니란다. 실제 인천에 살면 인천사람이지만 비중은 색깔론이다.

그간 문화예술은 정치적 중립

보다 매몰 현상이 남달랐다. 단체 등 예술인 예산 지원도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던 것은 불편한 진실이다. 예술인들은 신임 대표에게 바라는 속내가 있다.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지 말아 달라는 당부다.

진보와 보수 예술단체 등 예술인들을 고루 품는 인천문화재단이 되길 바라고 있다. 신임 대표가 한쪽으로 매몰된 행보를 보인다면 인천 예술계는 금방 눈치를 챌다는 사실이다. 인천문화예술을 위해 오픈된 문화재단의 행보를 기대한다.

김영덕 대표이사 임기는 3년으로 2027년 2월 20일까지다. 유정복 인천시장 선임에 찬물을 붓는 행위가 인천문화재단을 통해 나온다면 큰일이란 우려감도 있다. 어떤 이유로 추천되어 급히 재단 대표로 선임된 것은 내부의 일이라 함구다.

각설하고 오직 문화재단의 융성을 위해서만 신임 대표의 행보가 이어진다면 박수를 받을 것이다. 인천 예술계의 자부심을 만드는

것은 재단 대표의 몫이 됐다. 자유는 신념에 따라 정치적 행보는 누구나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대표로 일하게 되면 편애는 안 된다.

예술인들의 신망은 여기서 나온다. 문화 발전을 위해 분야별 콘텐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특히 문인 등 책 출간 지원의 쏠림 현상이 있었다. 이 같은 쏠림 현상의 선정은 다른 분야도 비슷하다는 것이 재단을 평가하는 대목이다.

내부의 문제를 신임 대표가 잘 드러내 보길 조언한다. 가난한 예술인들은 예술이 좋아 삶을 산다. 의식주보다 더 선 순위에 둔 예술인들은 고달프지만 전념한다. 신임 대표가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행정보다 재단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김영덕 인천문화재단 신임 대표이사의 승패는 예술인들의 어울림을 통해 인천 문화계 발전에 있어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 예술인들의 지지를 받는 대표로서 한길만 걸어가길 기대한다.